

환경적 요인이 복막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 : 도시-농촌 거주자간의 비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 인공신장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준엽 · 배송이* · 박성주* · 강혁주[†] · 탁우택 · 이정호

목적 : 지속성 외래복막투석과 관련된 복막염은 복막투석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복막투석과 관련된 복막염의 발생은 지역과 병원간의 차이가 있으며 환자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인자들과 연관성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복막염을 일으키는 요인 중 농촌과 도시 등 거주지와 관련된 복막염의 발생빈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방법 : 1998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복막투석 중인 환자 중 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하였고 의무기록을 통해 복막염의 발생빈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환자의 주거지, 주거형태,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경제수준, 투석교육에 대한 수용성 (투석지식), 투석액 교환시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정도 (마스크, 손씻기 수행), 독립된 개인투석실의 유무, 복막투석을 유지해온 수행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결과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군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군보다 높은 평균연령, 낮은 학력 수준 및 저소득을 보였지만 (각각, $p < 0.05$), 복막염의 발생빈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관찰할 수 없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복막투석 환자의 복막염은 개별적이며, 반복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으로 그 발생률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고연령, 저학력의 복막투석 환자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시범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